

영터리 글로벌 '3색 신호등' ... 조현오 청장이 답해야

취재일기

화살표 3색 신호등 시범 운영이 시작된 지 후인 지난달 21일, 기자는 경찰 관계자를 찾아가 신호등을 갑자기 바꾸게 된 이유를 물었다. 그는 대뜸 종이와 연필을 꺼내 들고 R, Y, A, G를 적었다. 빨강(Red)·노랑(Yellow)·화살표(Arrow)·초록(Green)이 있는 우리나라 4색 신호등 얘기였다. 그는 "이게 R, Y, G가 돼야 하고, 그게 빈 협약의 원칙이며, 교통 전문가들은 다들 그렇게 본다"고 했다. RTOR(Right Turn on Red·빨간 불일 때 우회전), Roundabout(회전교차로) 같은 용어도 쏟아냈다. 요지는 화살표 3색 신호등이 선진적이라는 거다. 일반 국민은 전문 지식이 없어 잘 모르는데 익숙해지면 참 좋은 제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 10년 넘게 살았던 기자를 비롯해 많은 주한 외국인은 한국 신호등이 외국 신호등에 비해 후진적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경찰의 '전문적인 설명'

을 아무리 들어봐도 현행 신호체계가 그렇게 불편하고 비합리적이어서 화살표 3색 신호등으로 바뀌어야만 선진 교통체계가 완성되는 것인지 공감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무작정 바꿔 놓고 익숙해지라... 일방통행식 정책 강요도 이런 강요가 없다.

경찰은 미국 뉴욕의 맨해튼과 독일 베

일방통행 뉴욕 맨해튼과

16차로 광화문 거리는 달라

를린에서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선진국 신호체계의 모델인 것처럼 홍보한다. 하지만 16차로 세종로 네거리와 일방통행 위주의 맨해튼, 협소한 베를린의 거리는 모양이나 환경이 제각기 다르다. 경찰의 글로벌 선진 운운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신호등은 그 어떤 전문 지식보다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 특히 이번 신호등 교체는 국회를 거친 법 개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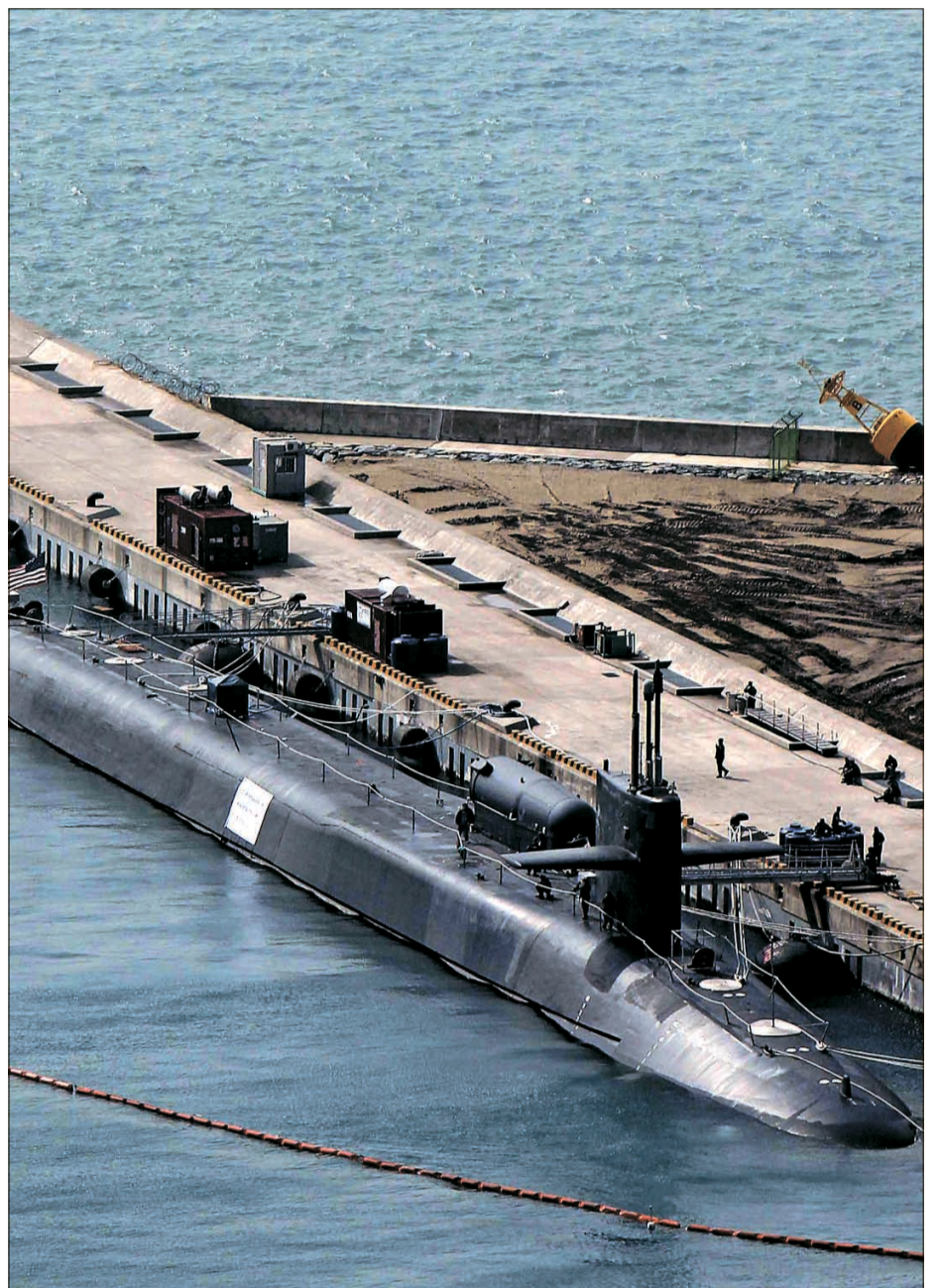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 일방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런 한국적 관행이야말로 글로벌스탠더드에 역행한다.

경찰은 현재 빨간 화살표 위에 'X'자를 넣어 혼선을 줄이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의 정보·교통·홍보라인 관계자들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틈만 나면 '국민 중심 경찰 활동'을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신호등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일에 조 청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신호등 교체에 의아해하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자해지해야 조 청장의 언행이 일치하는지 국민은 알게 될 것이다. 대국민 정책 강요도 이쯤에서 끝내는 것이 순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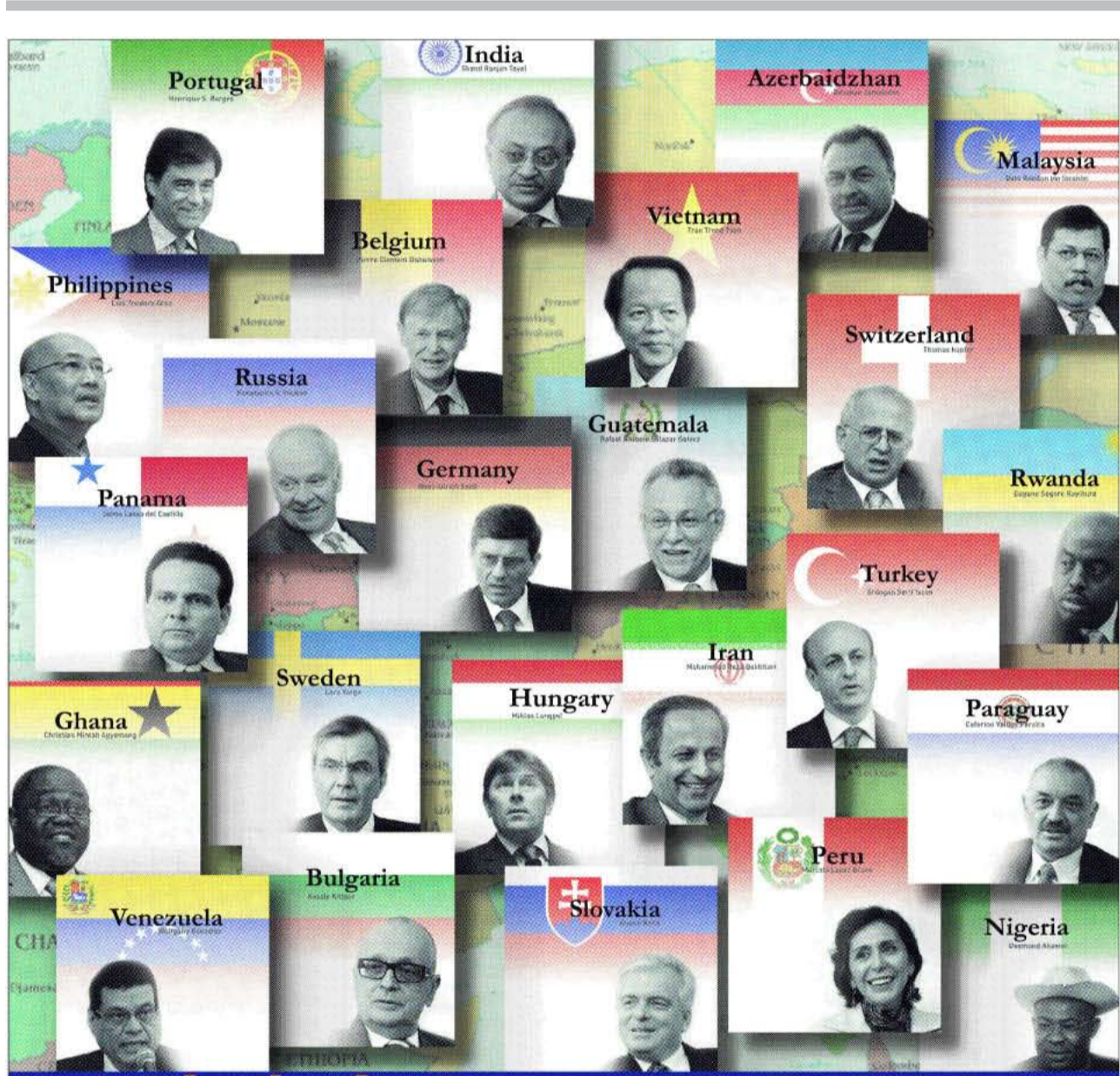
blast@joongang.co.kr



박성우
사회부 기자



세계 최대 핵잠수함 미시간호 부산 입항 한국을 찾은 미 7함대 소속 오하이오급 핵 추진 잠수함인 미시간호(SSGN 727)가 1일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다. 1982년 취역한 미시간호는 길이 170m에 수중 배수량이 1만8750t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이다. 16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7기를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조원은 150여 명이다. 부산=송봉근 기자



상명의 Smart DNA 세계와 소통하다!

상명대학교에는 각국 대사들의 특별한 강의를 비롯해 세계로 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세계 100여 개국 대사들이 직접 들려주는 강의에서 성공한 CEO들을 통한 생생한 현장체험까지 세계인의 생각과 현장의 언어로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키워나갑니다.

[2011학년도 후기 상명대학교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학생모집]

대학원명	원서접수 기간	전형일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대학원	2011. 5.16(월) ~ 5.20(금)	2011. 6. 4(토)	02-781-7901~3	grad.smu.ac.kr
교육대학원	2011. 5. 9(월) ~ 5.20(금)	2011. 6. 4(토)	02-2287-5032	edu.smu.ac.kr
문화예술대학원	2011. 5.20(금) ~ 5.27(금)	2011. 6. 4(토)	02-2075-2152	cart.smu.ac.kr
디자인대학원	2011. 5.20(금) ~ 5.27(금)	2011. 6. 4(토)	02-2075-2152	smart.smu.ac.kr
복지상담대학원	2011. 5. 9(월) ~ 5.24(화)	2011. 6. 4(토)	02-2287-5031	wac.smu.ac.kr
재테크경영대학원	2011. 5. 9(월) ~ 5.24(화)	2011. 6. 4(토)	02-2287-5120	mft.smu.ac.kr



서울캠퍼스: 110-743 서울시 중로구 홍지문2길 20 TEL. 02-2287-5114 | 천안캠퍼스: 330-72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TEL. 041-550-5114

“바로잡은 국사 내용 내년 교육과정부터 반영”

→ 1면 '한국사'에서 이어집니다

역사추진위원인 오성 세종대 대학원장은 “교과서를 쓰고 검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교과서 집필과 검정의 가이드라인을 역사추진위원회에서 만든다.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한 이념적 편향을 교정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추진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새로 만들어질 교과서는 2013년 고교에 배포된다. 그에 앞서 2012년 1년간 필수과목으로 쓰일 교과서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근·현대사 내용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할 소위원회가 5월 중순 역사추진위 산하에 마련된다.

이배용 위원장은 “올해는 고교에서 국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념 편향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한국사가 필수로 부활하는 내년 1년간 쓰일 교과서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소위원회에서 지금 교과서의 근·현대사 서술의 문제점을 찾아내 내년 교육 과정부터 국사 교육 내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기능을 맡은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다.

국사편찬위 이태진 위원장은 “한국사 교과서의 믿을 만한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배영대·심서현 기자

balance@joongang.co.kr

한국인 4명 탄 싱가포르배, 케냐 앞바다서 피랍

소말리아 해적 소행으로 추정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4명이 탄 싱가포르 선적 화학물질 운반선 'MT 제미니'호가 지난 달 30일 케냐 인근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고 AFP 통신이 1일 보도했다.

선박 소유사인 '글로리 십 매니지먼트'는 “25명이 탑승한 화학물질 운반선 'MT 제미니'호가 인도네시아를 출발해 케냐 몸바사로 향하던 중 선박에 오른 괴한들에게 끌려갔다”고 밝혔다.

이 배엔 선장 박모(56)씨와 선원 등 한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13명, 중국인 5명, 미얀마인 3명이 타고 있었다. 선박에는 3만 1000t의 인도네시아산 야자유가 실려 있었다. 이 회사는 피랍 선박이 현재 소말리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납치된 선박의 선사



가 싱가포르 회사여서 국제법상 싱가포르 정부가 구출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납치 사실을 확인한 직후 비상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선원들을 구출해달라’고 싱가포르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싱가포르가 선박이 납치된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고 있지 않고, 피랍 지점이 해적들의 본거지와 가까워 구출 작전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충형 기자

adche@joongang.co.kr